

이광수의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 연구*

-번역 문제를 중심으로-

박 상 현**

(e-mail: koreaswiss@hanmail.net)

目次

1. 머리말
 2. 「李方子殿下御歌九首」
 3. 이광수의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
 - 3.1 왜 번역했나
 - 3.2 어떻게 번역했나
 4.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명 이방자(李方子), 일본 이름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¹⁾는 1901년에 일본 황족인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梨本宮守正)의 딸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한때 쇼와(昭和)천황인 히로히토(裕仁)의 유력한 비(妃) 후보이기도 했다.²⁾ 그런 그녀가 일본에 볼모로 끌려갔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이은(李垕)과 1920년 4월 28일에 결혼하게 된다. 당시 이은에게는 결혼 상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NRF-413-2011-2-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일본문화학

1) 이방자에 관한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태준(1985) 『비교문학산고』 민족문화추진회.

노영희(2001) 「이방자의 자전을 통해본 한·일 근대사에 대한 자각과 한계」 『일어일문학연구』 제3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 이방자·이건 공저, 방기환 역(1960) 『제일 영친왕비의 수기』 신태양사출판국. 6쪽

대자로 조선인 민갑완이 있었는데도 말이다.³⁾ 정략결혼이었던 셈이다.⁴⁾ 그리고 1989년 4월 30일에 창덕궁 낙선재에서 8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⁵⁾

이와 같이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보낸 이방자에 대해 우리들은 주로 광복 후에 펼친 그녀의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상을 통해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3년에는 신체장애자재활협의회 부회장에 취임했고, 1966년에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자행회(慈行會)를, 1967년에는 언어장애인 및 소아마비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명휘원(明暉園)을 각각 설립했다. 그리고 1971년에는 지적장애어린이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자혜학교(慈惠學校)를 세우기도 하는 등⁶⁾, 이와 같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이방자는 현재도 장애인들의 어머니로 존경받고 있다.⁷⁾

그런데 일제강점기하였던 1943년 8월 1일자 『매일신보』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당시는 제국일본이 대동아전쟁이라고 명명했던 태평양전쟁이 한창이었는데, 대동아전쟁과 징병제를 테마로 하여 창작한 이방자의 와카(御歌)가 『매일신보』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총 9수(首)다. 「李方子殿下御歌九首」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신문에는 일본어로 발표된 이방자의 와카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더불어 그것의 조선어 번역문도 같이 게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한 사람이 다름

3) 민갑완은 영국 공사 등을 역임했던 민영돈의 자제인데, 이은과의 결혼이 무산되는 바람에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1968년에 사망했다. 파혼으로 인한 그녀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헌이 참고가 된다.

민갑완(1962) 『백년한-민갑완인생수기』 문선각. 13-339쪽

민갑완(2014)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정혼녀』 지식공작소. 3-304쪽

이수경 편(2010) 『한일교류의 기억』 한국학술정보. 184쪽

오타베 유지 지음, 황경성 역(2009)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 동아일보사. 162-166쪽

혼다 세츠코 지음, 서석연 역(1989) 『비련의 황태자비』 범우사. 83-89쪽

『한겨레신문』 (2014.7.22)

4) 이방자 본인은 자신의 약혼 발표를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의 충격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다이쇼大正 초기에는 일반 세간에서도 부모라든가 가문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었기에,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황족의 경우는 더 자유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신문에 실리기 전에 각오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함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슬픔도 아닌 뜨거운 눈물이 알 수 없이 넘쳐 나옵니다.”

오타베 유지 지음, 황경성 역(2009)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 동아일보사. 73쪽

5) 『시사오늘, 시사ON』 (1989. 4. 30)

6) 그녀의 사회봉사활동에 필요했던 재원에 관해서는 아래의 문헌이 참고가 된다.

강용자 지음, 김정희 역(2013)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 마사코입니다』 지식공작소. 344-351쪽

7) 이방자 ‘인물지식-지식 백과사전’

http://k.daum.net/qna/item/blog.html?svcorgid=_SDB&sobid=homo&itemid=43655(검색일 : 2014. 6. 20)

아닌 당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을 대표했던 가야마 미츠로(香山光郎) 곧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였다는 사실이다.

번역론에 관심이 있는 본고에서는 이방자가 창작한 와카에 대한 이광수의 번역 텍스트 곧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 8)에 관하여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즉 이광수는 왜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선어로 옮겼을까?

2. 「李方子殿下御歌九首」

이방자가 평생 얼마나 많은 와카를 창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와카를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결혼 직전인 1919년 1월 22일에 고종 황제의 붕어(崩御) 소식을 접하고는 그 슬픔을 와카로 표현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와카가 그것이다.

【조선어 번역문】

초상화로 매일 그리는 아버님 태황자는
아직 뵈지 않은 그림자 속에 아른 거려요
나 조차도 이리 슬퍼진 것을
그 분들 한국인은 그 얼마나 슬퍼하실까9)

【일본어 원문】

うつしえを日毎おがみて父上の
まだ見ぬかげをしのぶこのごろ
われさえも悲しきものをこま人の
なげきのほどをぞ思いやらるる10)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방자는 대동아전쟁, 곧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8월 1일에 대동아전쟁과 징병제를 테마로 한 와카를 『매일신보』에 발

8) 과문 탓인지 모르겠지만 「李方子殿下御歌九首」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한 것은 본고가 처음인 것 같다. 즉 이광수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을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9) 우리말 번역은 김태준의 번역을 차용했다.
김태준 앞의 책. 33쪽

10) 李方子(1968) 『動乱の中の王妃』講談社. 62-63頁

표한다. 「李方子殿下御歌九首」가 그것인데, 여기에는 ‘李方子殿下의御高德 / 徵兵半島를 御激勵 / 御歌九首를青年과銃後に下賜’라는 제목 하에 우선 ‘이방자의 사진’이 나오고, 다음으로 ‘情報課発表’, ‘香山光郎의 謹訳’, ‘方子女왕의 와카’ 순으로 나와 있다. 이것을 <표1>로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표1>

구성	제목	주요 내용
표제	李方子殿下의御高德 / 徵兵半島를 御激勵 / 御歌九首를青年과銃後に下賜	고덕(高德)한 이방자 전하가 반도 출신의 징병 격려차, 친히 지은 와카 9수를 청년과 총후(銃後)에 하사
사진	李王妃方子女王殿下	이방자 전신 사진
해설	정보과 발표	군무에 바쁜 이왕 전하 소개, 부덕(婦德)이 높은 이왕비 전하 소개, 그리고 이왕비 전하가 이왕직 장관(곧 장관 및 차관)을 불러 당시 시국에서 총후 곧 후방 여성의 몸가짐에 대해 언급한 후, 대동아전쟁 중에 읊은 9수의 와카를 하사
조선어 번역문	李方子殿下御歌九首 香山光郎의 謹訳	이광수 곧 가야마 미츠로가 이방자의 와카 9수를 ‘「이것은 大東亞戰下に 朝夕으로 늦긴바 맺가지름 을 뜯것이니 모든 무리의게 말하는 대신으로伝하고십흐다」 하시는 말씀을 부치시와 내리신 노래’라고 설명한 후, 그녀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
일본어 원문	方子女王	「大東亞戰下に思ふこゝろを詠める歌」라는 타이틀하에 6수, 「昭和十九年度よりふるさとの若人も兵役に召さると聞きて」라는 제목하에 3수 읊음

그럼 지금부터 「李方子殿下御歌九首」의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표제’에서는 이방자가 반도¹¹⁾ 출신의 징병을 격려하기 위해 친히 지은 와카 9수를 청년과 총후에 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표제’에는 와카를 하사한 대상이 청년과 함께 총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진’에는 ‘이왕비 방자 여왕 전하’라는 부기(附記)와 함께 이방자의 전신 사진,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무릎 위까지 나온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11) ‘반도’ 곧 ‘HANTO(半島)’라는 용어는 당시 차별어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일본에서는 가끔 차별어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半島’를 역사적인 용어로 생각하여 그대로 차용한다. 널리 양해를 구한다.

‘해설’에서는 이방자가 언급한 총후가 곧 후방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가 여성들의 몸가짐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과 대동아전쟁 중에 읊은 9수의 와카를 하사하게 된 경위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이것은 대동아전쟁중에 아침저녁으로 느린바를 노래로 읊어본것인데 못사람에게 이르는말대신 전하고저 생각한다¹²⁾

또한 ‘해설’에서 특히 눈이 띄는 것은 징병제에 대한 언급이다.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선을 『고향』이라고 말씀하시와징병제실시에 기꺼움과 보람을가지시는 우아하옵신 마음씨가 가추 어가에도 힘있게 나타나 감동맞는바잇서 한가지로 감격함을 금치못한터이엇는데(후략)¹³⁾

이 인용문에는 이방자가 조선을 ‘고향’¹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에 대해 그녀가 기뻐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징병제에 관한 두 번째 언급이다.

특히징병제도실시에관하고마우신뜻을 우르러살핀나마에¹⁵⁾ 반도청년은 광휘잇는전통에 빛나는제국군인이되는 명예와광명에감분하야 더욱더각오를 새로이한바잇섯다고하는데 이런말을듯자웁고 어느누구나 비전하의 어청고하시고 또 늠름하신어부덕을 우르러살피고 머리가 숙어지지안는자 업는터이다¹⁶⁾

이 인용문은 반도 출신 청년이 광휘 있고 전통 있는 제국일본의 군인이 되는 명예와 광명에 감동하고 있다고 진한다.

‘조선어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12) 『매일신보』 (1943. 8. 1)

13) 같은 신문

14) 후에 자세히 인용하겠지만 이방자는 「昭和十九年度よりふるさとの若人も兵役に召されると聞きて」라는 제목하에 와카를 3수 읊었는데, ‘고향’이란 위 제목에 나오는 ‘ふるさと’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자와 토미오(井竿富雄)는 이수경이 편집한 『한일교류의 기억』에서 이방자가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남편의 나라인 조선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수경 편 앞의 책, 187쪽

15) ‘나마에’는 ‘나머지’라는 뜻이다.

16) 앞의 신문

【번역문】

李方子殿下御歌九首

香山光郎 謹訳¹⁷⁾

「이것은 大東亜戦争하에朝夕으로 늦긴바 멧가지를 을픈것이니 모든 무리의 게 말하는 대신으로伝하고십흐다」 하시는 말씀을 부치시와 내리신 노래.

大東亜戦下에 마음에 느낀바를 을픈 노래

아모리한 물결이 밀어오더라도 백성된 우리 한 마음이되어서 밀어물리치과져 큰 싸흠한창 버러진 이째언만 편안들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福을 닛지말아라 戰場에 나간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라위하야 바쓰는 힘이 되세 우리들 날어나서

꿈을 못새인 사람이 만흔지라 싸싸하면은 뒤떨어지쉬운 오늘의 형편이어 아모리하게 이 몸 부서지기로 아싸울것가 크오신 닝금의 일 일우어노키까지 모도 저마다 마음을 굿게 먹고 나라 위하야 붓그럽지아니한 사람으로 나갓스라

昭和十九年度부터우리故郷 젊은이들도 兵役에부르심밧다는말을듣고

다 한가지로 나라를 지키라고 부르옵시는 우리 닝금님의뜻 황송도하시와라 나라위하야 한 마음이 되어서 힘다하여라 닝금님의 군사로 나서는 젊은이들 젊은이들아 그 집안 사람들아 닝금위하와 참마음 하나로 날어나라하노라¹⁸⁾

‘조선어 번역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자의 와카 9수가 ‘대동아전쟁에 관한 와카’ 6수와 ‘징병제에 관한 와카’ 3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원문】

大東亜戦下に思ふこゝろを詠める歌

方子女王

いかならむ波よせくとも御民みな ひとつこゝろに打ちかへしてむ
みいくさのさなかたれとも安らかに 日ことをすこす幸をわするな
いくさひとの上をしのひて国のため かけの力とたゝむわれらは
ゆめさめぬ人おほしくともすれは おくれかちなる世のさまにして
いかさまに身はくたくともをしからず このおほみわさなしとくるまで

17) 여기서 이광수 곧 가야마 미즈로가 ‘근역’이라고 붙인 것은 이방자의 와카에 대한 그의 경외와 존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후에 기술할 예정이다.

18) 위의 신문

おのかしゝ心ひきしめ国の為 はちなき人と進めとそ思ふ

昭和十九年度よりふるさとの若人も兵役に召されると聞きて
ともともに国のみたてとめしませむ 大みこゝろそかしこかりける
君のためひとつこゝろにはけまなむ しこのみたてとたゝむ若人
わかうとも家人ともに君のため まことひとつにたてよとそ思ふ¹⁹⁾

3. 이광수의 「李方子殿下御歌九首」 근역

3.1 왜 번역했나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방자는 대동아전쟁이 한참이던 때에 대동아전쟁과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를 테마로 한 와카를 손수 지었고, 이광수 곧 가야마 미츠로는 그것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1943년 8월 1일에 『매일신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인에게 소개했다.

그렇다면 이광수는 왜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 옮겨 식민지 조선인에게 전하고자 했을까? 안타깝게도 이광수는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그 번역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왜 이방자의 와카를 번역했는가 곧 그 번역의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식민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와 식민지 조선에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해 이광수가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기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최근에 발표된 박상현의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訳』 연구」라는 논문이 있기 때문이다.

위 논문에서 그는 명치천황(明治天皇)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한 「明治天皇御製謹訳」²⁰⁾이라는 와카 번역 텍스트에서 이광수가 조선어 번역문만이 아니라 일본어 원문도 함께 제시하는 ‘대역(対訳)’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번역 텍스트인 「明治天皇御製謹訳」은 대동아전쟁 발발 직전에 발표되었는데, 이 번역 텍스트 이전에 나온 여러 운문 번역 텍스트에는 조선어 번역문만 제시되었지, 일본어 원문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¹⁾ 또한 그는

19) 같은 신문

20) 「明治天皇御製謹訳」이란 명치천황이 손수 지은 와카(和歌)인 ‘어제(御製)’를 이광수가 번역한 텍스트를 말하는데, 이광수는 대동아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 5월, 7월, 9월에 세 번에 걸쳐 명치천황의 와카 가운데 41수를 골라 조선어로 옮겼다.

21)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고가 된다.

박상현(2014) 「『明治天皇御製謹訳』의 번역사적 위치 연구」 『일본연구』 제21집, 고려

다른 논문에서는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詠」이라는 번역 텍스트에서 조선어 번역문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²²⁾를, 일본어 원문은 조선인에 대한 일본어 보급²³⁾이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²⁴⁾

특히 대동아전쟁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 보급이 더욱 절실하게 된 데에는 1937년의 중일전쟁 이후 전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병사의 충원이 제국일본에게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곧 전장에서 일본인 병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조선인 병사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었고²⁵⁾, 이런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형태가 바로 일본문학작품을 조선어로 옮길 때 번역 텍스트에 조선어 번역문과 함께 일본어 원문도 제시하는 ‘대역’이었다.²⁶⁾ 물론 이때 이광수가 보급하고자 했던 ‘일본어’란 실용 언어로서의 일본어라는 측면보다는 최고급 일본어로서의 문학 언어였다.

결국 이와 같은 이광수의 의도가 2년 후에 그가 이방자의 와카 9수를 조선어로 번역한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詠」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번역주체 곧 이광수가 갖고 있던 ‘대동아전쟁관’ 및 ‘징병제관’이 이방자의 와카 번역에 밀접하게 관련됐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와카 번역 텍스트인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詠」에는 ‘대동아전쟁에 관한 와카’ 6수와 ‘징병제에

대학교 일본연구센터. 79-87쪽

22) 이것과 정반대의 경우이지만 일제강점기하인 1930년대 후반 이전에 조선문학작품이 일본어로 적지 않게 번역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윤대석은 야마다 간토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조선어 장려 정책』(不二出版, 2004)을 인용하면서, 조선총독부는 경찰과 같은 관리나 조선 거주 일본인에게 조선 통치의 효율을 위해 조선어를 장려했지만 그 성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번역을 통해 조선의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곧 조선문학작품의 일본어 번역을 통해 식민통치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총독부에는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하에서 번역이란 식민화의 채널이었다.

윤대석(2012)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 123쪽

23) 1940대 당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어 보급률 곧 일본어가 가능한 자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일본어가 가능한 자가 총 인구 대비 10%를 넘긴 것은 1938년이었고, 그 수는 270여만 명이었다. 1942년에는 일본어가 가능한 자가 19.94%에 달하게 되었고, 그 수는 약 510만 명 정도였다. 하지만 세키 마사아키(関正明)는 당시의 일본어 보급률을 알려주는 여러 통계수치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총독부 편(1943) 『조선사정』 조선총독부. 9쪽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공편(1945) 『조선연감』 1945년판 경성일보사. 130쪽

関正明(1997) 『日本語教育史研究序説』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22頁

24) 박상현(2014)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詠』 연구」 『일본학연구』 제41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01쪽

25) 세키 마사아키도 이와 같은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시 널리 퍼졌던 다음과 같은 표어였다고 말한다.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어(=일본어) 생활을 실행하자”. “내선일체 우선 국어부터”. “국어로 나아가자 대동아”

関正明 前掲書. 22頁

26) 박상현 앞의 논문(「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詠』 연구」). 201-202쪽

관한 와카' 3수가 실려 있다.

이방자의 와카 가운데 '대동아전쟁'에 관한 와카 곧 「大東亜戦下에 마음에 느낀바를 읊은 노래」 6수는 이미 앞에서 인용했는데, 요컨대 여기서 이방자는 어려운 전사상황이지만 일치단결하여 '나라(国)'를 위하여 '닝금' 곧 천황을 위해 나아가자고 읊고 있다.

이방자의 이와 같은 와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이광수는 대동아전쟁을 예찬하는 작품을 일본어 잡지인 『録旗』에 아래와 같이 남기고 있다.

【조선어 번역문】

전망

가야마 미츠로

그것은 필경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 지구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대단한 세계임에 틀림없다——
우리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대동아는

봐라, 저 아름답고 풍족한 남방을
저 추위도 더위도 혹독한 북방의 광야를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지는
온화한 변화가 많은 우리 온대를

(중략)

한편으로는 아시아 대륙을 따르고
한편으로는 태평양제도를 기르고
우리 일본은 군림한다
신의 나라, 섬의 나라, 후지의 나라, 미와 사랑의 나라

(중략)

만세일계의 천황 여기에 있고
오로지 충효스러운 백성 이 토지에 번창한다
일찍이 인류의 훌륭한 문화의 요람이었던 것과 같이
정말이지 인류 구제의 발상지는 이 토지다

이 땅, 이 백성을 가지고 만들자
새로운 세계——황도의 대동아
이 평온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이 거대한 빛——그것은 필경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다²⁷⁾

【일본어 원문】

展望

香山光郎

それはさぞすばらしいものに違いない
この地球が曾つて見たことのない
すばらしい世界に違いない——
われらが現に築いてゐる大東亜は

見よ、かの美しくて豊かな南方を
かの寒さも暑さも厳しい北の曠野を
そして、その間に広がれる
温和な、変化に富んだわが温帯を

(中略)

一方にアジアの大陸を従へ
一方に太平洋の島々を育みて
我が日本は君臨する
神の国、島の国、富士の国、美と愛の国

(中略)

万世一系の天皇こゝにいまし
忠孝一本の民この土地に榮ゆ
曾つて人類の善き文化の揺籃たりし如し
将に人類救済の発祥はこの地

この土、この民もちて造らむ

27) 緑旗聯盟(1943)「展望」『録旗』제13권1호, 興亜文化出版. 116-118쪽
우리말 번역은 필자.

新しき世界——皇道の大東亜
その安き、樂しき、美しき
その大いなる輝——それはさぞすばらしいものに違いない²⁸⁾

방금 인용한 이광수의 시 「전망」에는 일본을 맹주로 한 대동아전쟁의 예찬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이방자의 또 다른 와카인 ‘징병제’에 관한 와카 곧 「昭和十九年度부터우리故郷 젊은이들도 兵役에부르심받다는말을듣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이방자는 ‘징병제’에 관하여

다 한가지로 나라를 지키라고 부르옵시는 우리 닝금님의뜻 황송도하시와라
나라위하야 한 마음이 되어서 힘다하여라 닝금님의 군사로 나서는 젊은이들
젊은이들아 그 집안 사람들아 닝금위하와 참마음 하나로 날어나라하노라²⁹⁾

와 같은 성격의 와카를 읊었다. 요컨대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지키라는 ‘닝금’ 곧 ‘천황(大み, 君)’의 뜻을 받들어 천황의 병사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징병제는 1944년에 실시되었는데³⁰⁾, 이광수는 징병제 실시에 대해 「徴兵과 女性」, 「앞으로 二年」과 같은 글을 『신시대』에 발표하여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내후년부터 조선사람의 아들들은 징병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나이의 할일이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농사나 공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직업으로 나라를돕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 병정이 되어서 나라를돕는 일입니다. 그 동안 조선사람 남자들은 병정이 못 되었으니 반편국민 노릇을 한 세움이었습니다. 내후년부터야 웅글은 국민이되는 것입니다.³¹⁾

이번 징병에 대하여 우리는 첫째로 감사하고 둘째로 반성할것입니다. 감사하는 까닭은 나라에서 우리 조선사람을 황국신민으로 믿어 주신 것이오, 반성할것은 우리의게 과연 그만한 신임을 받을만한 애국심과 실력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곳에 우리 조선사람의 도리가있고 진보가 있는것입니다.³²⁾

28) 같은 잡지. 116-118쪽

29) 앞의 신문

30) 참고로 1934년에는 총동원법, 1938년에는 조선육군특별지원병제, 1943년에는 국민징용령, 1944년에는 징병제가 각각 시행되었다.

31) 香山光郎(1942) 「徴兵과 女性」 『신시대』, 신시대사. 28쪽 단, 띄어쓰기 등은 원문 그대로. 이하 같음.

32) 같은 잡지. 28쪽

한번 兵役의 義務를 치르고남으로 完全한 國民이 된다. 兵役을 안 치른 國民은 半人이다. 그럼으로 徵兵이 고맙다는 것이다.³³⁾

여기서 이광수는 징병제 실시로 식민지 조선인은 온전한 일본국민이 될 수 있다고 감격해 하며, 징병제 실시에 대해 감사하자고 말한다.

결국 임종국이 『친일문학론』에서

내지인과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천부인 인권의 동등한 향유, 다시 말하면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의 동등한 주체가 된다는 것이었고, 이는 납세, 교육, 병역의 의무를 비롯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의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지인과 같이 동등하게 향유한다는 것이었다.³⁴⁾

고 지적하고 있듯이, 이광수는 징병제 실시로 식민지 조선인은 내지의 일본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³⁵⁾

덧붙여 놀랍게도 이광수는 징병제를 테마로 하여 자신이 직접 일본어로 와카도 창작했다. 즉 그는 1941년 1월에 일본어로 쓴 『동포에 고함(同胞に寄す)』이라는 책에서 아래와 같이 8수의 와카를 창작하여 실었는데,³⁶⁾ 여기에 징병제를 테마로 한 와카인 「지원병을 기리며(志願兵をたたへて)」가 게재되어 있다.³⁷⁾

【원문】

「朝鮮神宮大前にて」³⁸⁾

大前の作法になれずひたすらに伏しかしこみつ祈りも得せず³⁹⁾

大前にわがかしはでの鳴る音の高御座より降る心地して⁴⁰⁾

33) 香山光郎(1942) 「앞으로 二年」 『신시대』, 신시대사. 18쪽

34) 임종국(2002) 『친일문학론』 민족문화연구소. 277쪽
단, 초판은 평화출판사에서 1966년에 나왔다.

35) 실제로 이광수는 광복 후 발표한 「나의 고백」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이번 전쟁에 이긴다 하면, 우리는 최소한도로 일본 국내에서 일본인과의 평등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실은 그렇게 되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기껏해야 이등(二等) 신민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광수(1971) 『이광수전집』 제7권 삼중당. 277쪽

36) 이광수의 창작 와카와 우리말 번역은 아래와 같은 문헌에 의함.

이광수 저, 김원모·이경훈 편역(1997) 『동포에 고함』 철학과현실사. 299-300쪽

37) 『동포에 고함(同胞に寄す)』의 존재와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광수의 와카를 알게 된 것은 이경훈(1998)의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태학사. 360-361쪽)를 통해서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38) 「조선신궁(朝鮮神宮) 신전에서」라는 의미이다.

39) 신전의 작법에 익숙치 못해 오로지 엎드려 두려워하네 기원도 얻지 못한 채

すめらぎの君と神とに連りて大和も高麗も一つなるかも41)

「志願兵をたたへて」 42)

君のため国の為ぞといとし子は銃執りてこそいとま乞ひけれ43)

ををしさに胸躍らしつ死してなほ誉れあれよと吾祈るかな44)

すめらぎのめぐみの露に韓の野も霑ひてこそ吾は立つなれ45)

百歳を生きながらふも善きことにこの身捨つる日えがたしと聞<46)

わが残す心は代代に大御代を慕ひまつらむ護りまつらむ47)

요컨대 이광수는 와카 번역 텍스트인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을 통해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에 일본어를 보급하고자 했다. 또한 그가 평소 가지고 있던 대동아전쟁과 징병제에 대한 생각이 이방자가 와카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곧 이방자의 견해에 이광수의 공감기가 있었다는 말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이 이광수에게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하게 했다고 판단된다.

3.2 어떻게 번역했나

2014년 4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는 「‘셰익스피어 운문 번역’ 최종철 교수」라는 타이틀하에 최 교수의 셰익스피어 번역이 소개되고 있다. 셰익스피어 희곡 대부분이 산문이 아니라 운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번역이 그 운문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산문으로 번역되어 있었기에 번역에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최 교수가 그것을 우리의 운율인 3·4조를 적용하여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직접 최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영어의 운문 형식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 올 것이냐가 관건이었어요. 우리 시의 기본 운율인 삼사조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말 대사 한 줄의 자수를 최소 열두자에서 열여덟자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적절한 자수율을 찾아보았죠. 그러자 답이 나왔어요.48)

40) 신전에 올리는 내 박수 소리가 높으신 폐하로부터 내려오게 될 마음가짐으로

41) 천하를 다스리시는 천황 폐하와 신을 따라 야마토도 고려도 하나가 되기를

42) 「지원병을 기리며」라는 뜻이다.

43) 폐하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야라며 소중한 아들, 총 들고서야 작별 고향에

44) 씩씩하게 가슴 뛰며 죽어 더욱 명예있으라고, 나 기원할까나

45) 폐하의 은총의 이슬에 조선의 들마지 적을 때, 그때야말로 나는 일어서리

46) 백살을 살면서도 착한 일에 몸바칠 날 얻기 어렵다고 듣네

47) 나의 남은 마음 대대로 천황의 세상 사모하리 지켜 드리며

48) 『한겨레신문』 (2014. 4. 30)

이와 같이 운문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럼 이광수는 5음(音)·7음·5음·7음·7음으로 구성된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어떻게 했을까? 앞에서 이미 인용했지만 이광수는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다음과 같이 옮겼다. 이방자의 와카 가운데 일부를 다시 인용해본다.

「大東亜戦下에 마음에 느낀바를 읊은 노래」 가운데 일부
 큰 싸움한창(5) 버려진 이새언만(7) 편안들하게(5) 날마다 살아가는(7) 福을
 닛지말아라(7)
 戰場에 나간(5) 사람들을 생각하고(7) 나라위하야(5) 바쁘는 힘이 되세(7) 우
 리들 날어나서(7)
 아모러하게(5) 이 몸 부서지기로(7) 아싸올것가(5) 크오신 닝금의 일(7) 일우
 어노키까지(7)

「昭和十九年度부터우리故郷 젊은이들도 兵役에부르심밧다는말을듯고」
 다 한가지로(5) 나라를 지키라고(7) 부르옵시는(5) 우리 닝금님의뜻(7) 황송
 도하시와라(7)
 나라위하야(5) 한 마음이 되어서(7) 힘다하여라(5) 닝금님의 군사로(7) 나서
 는 젊은이들(7)
 젊은이들아(5) 그 집안 사람들아(7) 닝금위하와(5) 참마음 하나으로(7) 날어
 나라하노라(7)

물론 이광수는 이방자의 와카를 5·7·5·7·7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번역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와카의 리듬인 5·7·5·7·7을 살리면서 번역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모러한 물결이(7) 밀어오더라도(6) 백성된 우리(5) 한 마음이되어서(7) 밀어
 물리치고져(7)
 꿈을 못깨인(5) 사람이 만흔지라(7) 싸싹하면은(5) 뒤떨어지쉬운(6) 오늘의 형
 편이어(7)
 모도 저마다(5) 마음을 굿게 먹고(7) 나라 위하야(5) 붓그럽지아니한(7) 사람
 으로 나갓스라(8)

그럼 이광수는 왜 와카의 리듬인 5·7·5·7·7을 살려가면서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했을까? 예를 들어 좀 전에 인용한 최종철 교수처럼 우리의 운율인 3·4조로 번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자 번역가인 김억은 와카를 우리의 양장 시조형으로 옮겼다. 즉, 그는 1943년 7월 28일부터 8월 31일에 걸쳐 조선총독부

의 조선어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만엽집(万葉集)』을 발췌하여 번역한 「만엽집초역(万葉集鈔訳)」을 총 29회 연재했다. 그때 그는 5·7·5·7·7로 구성된 『만엽집』의 와카를 양장시조형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토모노 사카노우에노이라쓰메(大伴坂上郎女) 권4·688
靑山の(3) 구름처럼(4) 그러듯(3) 分明하게(4)
이님아(3) 날보고 웃되(5) 남못알게(4) 하소라(3)

작자 미상 권10·2318
차가운(3) 동이틀제(4)窓열고(3) 내다보니(4)
뜰우에(3) 눈이내려서(5) 희듯희듯(4) 하더라(3)

방금 인용했던 김억과 달리 이광수는 와카의 리듬을 준수하면서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했다. 곧 번역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김억의 번역 방식은 도착언어 중심주의였고, 이광수의 그것은 출발언어 중심주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최근에 자세하게 논한 것으로는 앞서 이미 한번 인용했던 박상현의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訳』 연구」가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이광수가 와카의 리듬에 따라 와카를 조선어로 옮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이광수는 『만엽집』 등을 통해서 평소 와카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스스로 직접 와카를 창작하기도 했다.⁴⁹⁾ 따라서 그는 와카의 리듬에 친숙해 있었고, 그 리듬이 내면화되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와카의 리듬을 살려 조선어로 번역하게 되었다. 둘째, 그는 명치천황이 손수 지은 와카인 「明治天皇御製」라는 ‘신성한 텍스트’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 있었고, 그것이 이광수로 하여금 「明治天皇御製」를 와카의 리듬대로 번역하게 했다.⁵⁰⁾

결국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했던 「明治天皇御製謹訳」에 보이는 이와 같은 이유가, 2년 후에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긴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생각된다. 곧 이광수에게는 와카의 리듬이 내면화되어 있었고, 이왕비 전하인 이방자의 와카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 있었기에, 이광수는 와카의 리듬을 준수하면서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다고 판단된다.

49) 예를 들어 그는 1939년 2월에 「折りにふれて歌へる」라는 제목하에 일본어로 된 와카 9수를 『동양지광』에 게재했고, 1942년 1월에는 「元日」라는 타이틀하에 7수의 와카를 『신시대』에 실었다.

50) 박상현 앞의 논문(「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訳』 연구」). 191-211쪽

IV. 맺음말

이광수는 일제강점기하였던 1943년 8월 1일에 이방자가 손수 창작한 와카 9수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매일신보』에 게재한다.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이 그것이었다. 1943년이라면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때인데, 그는 왜 그때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을까? 번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긴 이광수의 번역 행위는 무척 흥미로운 테마다.

본고에서는 이광수의 번역 텍스트인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에 대해, 이광수는 왜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선어로 옮겼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우선 이광수가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했던 이유는 대체로 이렇다. 첫째, 이광수는 번역 텍스트인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에 일본어 원문과 함께 조선어 번역문도 제시했다. 그리고 일본어 원문을 통해서도 식민지 조선에 일본어를 보급하고자 했고, 조선어 번역문을 통해서도 식민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꾀하고자 했다. 둘째, 이방자는 자신이 창작한 와카 9수를 통해 대동아전쟁과 징병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이광수는 그것에 공감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이 이광수에게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하게 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광수는 이방자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와카의 리듬인 5·7·5·7·7을 준수하면서 조선어로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첫째, 이광수는 와카를 직접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와카의 리듬에 친숙해 있었다. 둘째, 일본 황족 출신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인 이방자가 손수 지은 와카에 대해 이광수는 경외와 존경을 가지고 있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광수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의 존재는 지금까지 국어국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는 적지 않다. 하지만 남겨져 있는 과제 또한 많다. 예를 들어 이광수는 「李方子殿下御歌九首謹訳」에서 ‘닝금(님)’ 등과 같은 번역어를 차용하고 있었는데, 일본어 원어와 조선어 번역어의 관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싶다.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강용자 지음, 김정희 역(2013)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 마사코입니다』 지식공작소. 334-351쪽
- 김태준(1985) 『비교문학산고』 민족문화문고간행회. 33쪽
-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공편(1945) 『조선연감』 1945년판 경성일보사. 130쪽
- 민갑완(1962) 『백년한-민갑완인생수기』 문선각. 13-339쪽
- _____ (2014)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정혼녀』 지식공작소. 3-304쪽
- 오타베 유지 지음, 황경성 역(2009) 『낙산재의 마지막 여인』 동아일보사. 162-166쪽
- 윤대석(2012)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 123쪽
- 이광수 지음, 김원모·이경훈 편역(1997) 『동포에 고함』 철학과현실사. 299-300쪽
- 이경훈(1998)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360-361쪽
- 이방자·이건 공저, 방기환 역(1960) 『재일 영친왕비의 수기』 신태양사출판국. 6쪽
- 이수경 편(2010) 『한일교류의 기억』 한국학술정보. 184쪽
- 임종국(2002) 『친일문학론』 민족문화연구소. 277쪽
- 조선총독부 편(1943) 『조선사정』 조선총독부. 9쪽
- 혼다 세츠코 지음, 서석연 역(1989) 『비련의 황태자비』 범우사. 83-89쪽

<국문 잡지>

- 綠旗聯盟(1943) 「展望」 『錄旗』 제13권1호, 興亜文化出版. 116-118쪽
- 李光洙(香山光郎 1942) 「徵兵과 女性」 『신시대』, 신시대사. 28쪽
- _____ (香山光郎 1942) 「앞으로 二年」 『신시대』, 신시대사. 18쪽
- _____ (1971)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제7권 삼중당. 277쪽

<국문 논문>

- 박상현(2014)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訳』 연구」 『일본학연구』 제41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01쪽
- _____ (2014) 「『明治天皇御製謹訳』의 번역사적 위치 연구」 『일본학연구』 제21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79-87쪽

<국문 신문 및 인터넷 자료>

- 『매일신보』 (1943.8.1)
- 『시사오늘, 시사ON』 (1989.4.30)
- 『한겨레신문』 (2014.7.22)
- 이방자 ‘인물지식-지식 백과사전’
- http://k.daum.net/qna/item/blog.html?svccorgid=_SDB&sobid=homo&itenid=43655(검색일 : 2014.6.20)

<일문 단행본>

- 關正明(1972) 『日本語教育史研究序説』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22頁
- 李方子(1968) 『動乱の中の王妃』 講談社. 62-63頁

要 旨

First, Lee Gwang-su had '*Lee Bang-ja's Nine Royal Verses*' published in both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Through the original Japanese version, he aimed to spread Japanese language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he Korean version targeted to make Koreans turn into the people of the Japanese empire (so-called 'Hwangguk Sinminhwa'). Second, Lee Bang-ja expressed his opinion on the Pacific War and conscription system in '*Lee Bang-ja's Nine Royal Verses*,' and Lee Gwang-su quite agreed with it. After all, these circumstances made Lee Gwang-su translate Lee Bang-ja's wakas into Korean. Furthermore, Lee Gwang-su adhered to the five-seven-five-seven-seven pattern of waka in translating the Japanese verses into Korean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Lee Gwang-su was so internalized and absorbed into the rhythm enough to write his own waka. Second, he had so much love and respect for the wakas of Lee Bang-ja, the last crown princess of Korea.

キーワード： Lee Gwang-su, Lee Bang-ja, Waka, The Pacific War, Rhythn, Conscription System

투 고 : 2014. 8. 31
1차 심사 : 2014. 9. 13
2차 심사 : 2014. 10. 4